봉은사, 당간지주로 불교중흥 새 기틀 세우다

10월 21일, '당간지주 불사 낙성식'
진우 스님 증명 깃발 게양·제막
역대조사 다례재로 업적·뜻 기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 봉은사는 10월 21일 일주문 앞에서 '당간지주 조성불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이 제막식을 하는 모습.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개산 1231주년을 맞아 천년고찰 대가람의 위상을 높이는 당간지주 조성으로 불교중흥의 새 기틀을 세웠다.

봉은사는 10월 21일 일주문 앞에서 '당간지주 조성불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세워 깃발을 거는 장대인 '당간(幢竿)'을 지탱하는 두 개의 돌기둥으로, 부처님 법이 머무는 도량임을 상징한다.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했으며 주지 원명 스님과 선원장 관도 스님 등 봉은사 대중 스님, 최진식 신도회장, 공덕주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당간지주 조성은 지난해 주지 원명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심사찰 봉은사에서 기도와 법회, 대규모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법석마다 깃발을 걸 수 있는 여법한 도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통방식의 불사를 추진한 것이다.

봉은사는 올해 2월부터 사부대중의 모연을 통해 불사를 본격화했다. 당간지주는 기단과 석축, 청동당간 33개, 그리고 최상부 봉황 장식으로 구성된 높이 15m 규모로 10월 17일 복장의식을 거쳤다.

진우 스님과 원명 스님 등 내빈들은 제막과 함께 깃발을 게양하며 봉은사가 도심 속 수행·포교 중심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이번 봉은사 당간지주 낙성은 봉은사가 간직해 온 불교의 정신과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세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 중심사찰이자 도심 속 천년고찰인 봉은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불법홍포와 수행, 그리고 사회참여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도량"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봉은사가 다시금 수행과 포교, 한국불교 중흥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낙성식 후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역대조사 다례재'가 봉행됐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헌향·헌다·헌화로 창건주인 신라 연회 국사를 비롯해 조선시대 억불정책 속에서도 도량을 지켜낸 보우·서산·사명 대사 등 총 9명의 조사 스님들의 업적과 원력을 기렸다.

원명 스님은 "연회 국사께서 창건하신 이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는 불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행과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봉은사를 이끌어 왔다"며 "다례재는 조사 스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정한 차를 올리고, 그 원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명상'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물질적 풍요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은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설사 극락에 있더라도 괴롭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결국 내 업은 내가 해결하는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사람이 감정의 업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명상과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며 "선명상은 감정을 멈추는 수행이다. 처음엔 5초, 5분부터 시작해 가능하다면 1시간까지 감정을 관찰하며, 기분 나쁜 일도 내가 만들어 낸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게 감정을 줄이고 소멸시키는 것이 선명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아트·AI로 마음돌봄 체험해 볼까

동국대 종학연구소, 'AI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

11월 2·14일 두 차례 개최
"AI와 명상 접목 긍정효과 기대"

한국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이슈가 됐으며 접근성 높은 새로운 형태의 마음돌봄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AI를 기반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케어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동국대의 주도로 열린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10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2·14일 두 차례 걸쳐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 지원 사업인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 행사는 AI·생체신호·미디어아트 기술과 명상이 접목돼 개인 맞춤형 마음 진단과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유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AI 미디어 아트 체험 △대화형 AI 심리상담 체험 △디지털 마음 진단 체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AI 미디어아트 체험은 김원화 작가의 '인간의 거울(2025)' 전시로 이뤄진다. 김 작가의 '인간의 거울'은 AI가 해석한 참여자의 감정 정보를 이미지·자막·음성 결합으로 시청각화해 제공하는 미디어아트로, 참가자는 자신을 판단하는 주체가 타인이나 내가 아닌 AI로 넘어가는 체험하게 된다.

11월 2일 열리는 첫 행사는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 B구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11월 14일 두 번째 행사는 동국대 중앙도서관 IF존에서 열린다. 14일에는 개막식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AI와 함께하는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돌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대화와 명상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개막식 직후에는 현장 체험존이 개방되며 직접 AI 심리상담과 생체신호 진단, VR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스님은 "AI와 생체신호, 예술이 결합된 이번 행사는 AI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현대의 선경(禪鏡)'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며 "불교의 수행적 전통과 AI와 함께하는 과학기술이 만나,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능력을 시민이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AI시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 활용과 '마음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각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제33회 불미전 대상 최윤수의 '그대에게 가는 길'

조계종, 불미전 수상자 발표
최우수상 3점, 우수상 4점 등


대상 수상작. 최윤수 작가의 '그대에게 가는 길'.

한국 불교미술 분야의 최고 권위인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대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불미전)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조계종은 "10월 12일 봉은문화회관에서 심사를 진행해 제33회 불미전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미전 공모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8% 증가한 219점(회화 108점, 조각 28점, 공예 58점, 미디어아트 25점)이 출품돼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졌음이 확인됐다.

대상에는 조각 부문의 최윤수 작가가 출품한 '그대에게 가는 길'이 선정됐다. 최 작가의 '그대에게 가는 길'은 형상과 의미, 기술과 감성의 조화를 두루 갖춘 수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회화 부문 최현희 작가의 '불입심상', 공예 부문 홍우진 작가의 '대면'(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회화 부문 조미영 작가의 '화엄경약찬게'(국가유산청장상)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회화 부문 김정심 작가의 '펜 하나로 그리는 만다라', 김민지 작가의 '김룡사 신중도', 조각 부문 안경진 작가의 '숨', 공예 부문 김민주 작가의 '금빛서사'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회화 부문 이상훈 작가의 '범어용승', 김미희 작가의 '천수관음보살도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조민경 작가의 '회암사, 다시 그 자리에서', 이명수 작가의 '개심사영산회 괘불탱', 조각 부문 남진석 작가의 '수월관음 그리고 피안', 최경락 작가의 '미완의 미륵불', 공예 부문 송은선 작가의 '동제은입사발' 등 총 7작품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특선 10작품, 입선 31작품이 선정돼 불교미술의 다양성과 세대 간 예술적 교류를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되며, 전시는 12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선운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출가자 모집

11월 21~30일, '쉼, 그리고 시작'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제1기 단기출가학교 출가자를 모집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선운사가 주관하는 '선운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이 11월 21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9박 10일 동안 진행된다.

조계종은 제37대 집행부 핵심주요 과제인 출가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출가 체험학교 운영을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출가 체험학교는 정식 출가에 앞서 실제 출가 수행자에 준하는 일상과 청규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예불, 발우공양, 운력 등의 기본 일상생활과 염불, 참선, 간경 등 수행자의 삶을 직접 익히게 된다.

'선운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은 출가 수행 희망자,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대중생활에 지장이 없는 남 6명, 여 6명을 모집한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여러 지도법사 스님들이 참가자들이 올바른 불교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예정이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청년세대 및 일반대중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자아 성찰 및 내적 성장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seonunsa.org) 참조. 063-561-1422

임은호 기자

